

★ 2019년 9월 21일 월례발표회(동국대학교) ★ 발표자 : 우성민(동북아역사재단)

◆ 교과서명: 『中國歷史』 七年級下冊(인민교육출판사, 2018, 2쇄)(2016년 교육부검정)
(초벌 번역임)

※ 7학년 下 목차

신 판(2016년 제1판, 2018년 제2쇄)

1단원 : 수당시대 - 번영과 개방의 시대

- 제1과. 수당의 통일과 멸망
- 제2과. 정관지치(貞觀之治)부터 개원성세(開元盛世)까지
- 제3과. 당 전성기의 기상
- 제4과. 당나라의 대외 문화 교류
- 제5과. 안사의 난과 당나라의 쇠퇴

2단원 : 요송하금원(遼宋夏金元) 시대 - 민족관계의 발전과 사회 변화

- 제6과. 북송의 정치
- 제7과. 요·서하와 북송의 병립
- 제8과. 금과 남송의 대치
- 제9과. 송대의 경제 발전
- 제10과. 몽고족의 흥기와 원나라의 건립
- 제11과. 원나라의 통치
- 제12과. 송원 시기의 도시와 문화
- 제13과. 송원 시기의 과학기술과 대외 교통

3단원 : 명청 시대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공고화와 발전

- 제14과. 명나라의 통치
- 제15과. 명나라의 대외 관계
- 제16과. 명나라의 과학기술·건축과 문화
- 제17과. 명나라의 멸망
- 제18과.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공고화와 발전
- 제19과. 청나라 전기의 사회경제적 발전
- 제20과. 청나라의 군주전제(君主專制) 강화
- 제21과. 청나라 전기의 문학과 예술

제22과. 활동학습 : 중국 전통 명절의 기원

부록. 중국 고대사 주요 사건 연표(하)

1단원 : 수당시대 - 번영과 개방의 시대

수조 건립 후, 남북을 통일하여 300년 의 정권분립의 국면을 끝냈다. 수조는 남북을 관통하는 대운하를 개통했고, 과거제를 창립하여 후대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수조를 이은 당조는 전기에 정치가 공명정대하고, 경제가 발전하였으며 민족관계에서 대외교류,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 다방면에서 모두 큰 성과를 거두어 번영했으며 부강한 성당의 기상을 이루었고 당시 세계의 영향력이 큰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당중기 안사의 난 이후 당조는 흥성기에서 쇠퇴하여 당말오대에 이르러는 중국에서 다시 할거세력이 팽창하는 상황에 전략하게 되었으며 사회동요의 불안한 국민을 이루었다.

제 1과 수조의 통일과 멸망

모두들 수나라가 멸망한 것이 이 운하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천리에 거쳐 물길이 통하고 있네, 만약 궁전이 있는 용주를 타고 남행하지 않았다면 우임금과 같이 공적을 논해도 부족함이 없네. 이는 당조 시인 피일휴의 汴何懷古(변하회고)이다.시 중 수조 대운하와 수양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조는 어떻게 전국을 통일했을까?어떤 정책을 수립했는가? 수조는 왜 38년만에 멸망했는가?

수조의 통일

북조의 최후 왕조는 북조다. 북조 말년, 외척 양견이 대권을 장악했다. 581년 양간이 북주 정권을 탈취했고, 수조를 세웠고, 장안을 도성으로 했으며,양견이 바로 수문제다. 당시 남방의 할거 정권이 진조다. 진조 후주는 정사를 돌보지 않고, 향락에 빠졌다. 589년 수문제는 진조를 멸했고 전국을 통일시켰다. 수조의 통일, 장기적으로 분열의 국면을 없앴고,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역사 발전의 대 추세에 순응했다. 수조가 통일 이후, 경제발전과 호적 편제, 남북 화폐와 도량형 제도를 통일시켰다.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고, 행정 효율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인구 수량과 간척지 면적이 대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조는 강역이 광활하게 되고 국력이 강성한 왕조가 되었다.

대운하 개통

남북조 교통을 강화하기 위해, 수왕조의 전국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수양조는 이미 보유한 경제력을 이용하고, 몇 백 만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605년부터 지속적으로 남북을 관통하는 대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대운하는 낙양을 중심으로 하며 북쪽으로는 탁군(涿郡)에 달했고 남쪽으로는 여항(余杭)까지 이르렀으며, 해하(海河)강, 황하, 위하(淮河), 장강과 전당강(錢塘江)의 5대 수계를 연결하였으며 전체 2길이가 000여 미터가 된다. 대운하의 개통은 남북지역의 정치와 경제, 문화교류를 강화시켰다.

과거제 창립하여, 인재를 선발하다.

위진남북조시기, 관리의 선발권은 상층의 집권자들이 농단하였고, 관리 선발시 가문을 중시하고 재능을 그리 중시하지 않았다. 명문대가의 자제들은 가문을 통해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 수문제 즉위 이후 전대의 관리 선발 제도를 폐지하고 인재들의 학식을 시험하는 것을 중시하여 초보적으로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를 수립했다. 수양제때 진사과의 설립은 과거제의 정식 성립을 의미한다. 과거제의 창립은 중국 고대 선발제도의 대변혁으로

황제의 관리 선발제도와 인재 등용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고 관리 선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능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교육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후 과거제도는 역대 관리를 선발하는 주요한 제도가 되어 계속해서 1300년간 유지되었다.

수조의 멸망

수문제는 철약을 엄격히 단행하였고 일찍이 태자를 교훈하여 이르길 : “자고로 사치를 좋아하는 제왕이 오래 지속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조의 제 2대 황제, 수양제는 큰일을 하여 공을 세우기 좋아하여 백성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향락을 마음껏 즐기워 했고 사치에 절도가 없었다. 그의 재위 기간에 일련의 중대한 공정을 건설했고 여러 차례 전쟁을 발동했으며, 백성으로 하여금 안심하여 살게 하지 못했고, 사회 모순을 격화시켰다.

수양제는 매년 대량의 노동력을 징발하려 했고, 길뿔하면 수백만을 동도 낙양을 건설하고, 대운하를 파고, 장성을 수축하고 교통로를 수축하도록 혹사했다.

각지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는 또한 여러 차례 순시를 하면서 높고 크며 화려한 용선을 탔으며 수행하는 배가 기세 등등했고, 길을 따르는 호위하는 병사와 배를 끄는 농민공이 수십만이 되어 대량의 인력과 재력을 소비했다. 수양제는 또 세차례 요동을 정벌했고, 대량의 농민으로 하여금 병역에 복무하게 했고 관가에서 쓰이는 인부로 삼았으며,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노동력 생산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수양제의 잔학한 통치는 백성들로 하여금 참을래야 참을 수 없게 하여 마침내 대규모의 농민봉기를 초래했다.

봉기가 가장 먼저 폭발한 곳은 백성들의 피해가 가장 큰 산동지역이었고 이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각 지에 수나라에 반대하는 허다한 대오를 형성하였다.

봉기군의 공격아래, 수조의 통치는 와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618년 수양제는 강도(江都)에서 부하에게 살해당했고, 한 시 매우 성행하게 되었던 수조는 이에 따라 멸망하게 된다.

제 2과 “정관의 치”에서 “개원성세”까지

당조는 중국 고대역사상 가장 전성시기였고 당시 세계적으로 명성이 혁혁했다. 당대 전기에 “정관의 치”와 “개원성세”의 국면을 아는가? 중국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무척천은 어떠한 공헌이 있는가?

당조의 설립과 “정관의 치”

수말 농민봉기가운데 원래 태원을 진수하던 수대 관료 이연은 기회를 틈타 수나라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다. 수양제가 살해당한 후, 618년 이연은 왕위에 오르고 당조를 건립하여 장안에 수도를 정했으며, 이어 각 봉기군과 할거세력을 소멸시켜 전국을 평정했다. 626년 이세민이 즉위하며 이듬해 연호를 “정관”으로 바꾸었는데, 그가 바로 역사상 저명한 당태종이다.

당태종이 20 여년 재위하는 기간동안 당조의 성세 국면을 열었다. 그는 수조가 속히 멸망한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여 정사를 부지런히 돌보며 겸허히 간언을 채택했고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였다. 중신 위정은 대담하게 직언을 했는데 전후 200 여 차례 간언을 했다. 위정이 죽은 뒤, 당태종은 그의 죽음을 몹시 애석하게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거울”을 잃어버린 것을 알 수 있었다. 당태종은 널리 현명한 인재를 받아들였고, 사람의 능력을 잘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잘 임용하여 당시 조정에 인재가 차고 넘쳤는데, 방현령은 모략에 능했고, 두여해는 결단을 잘했으며, 그들 모두 정관시기 저명한 재상이었다.

정관시기 일련의 혁신적인 조치를 추진했다. 정치적으로 한층 더 완전한 3성6부제를 시행했고, 중앙기구의 직권과 결책 순서를 명확히했다; 법률을 제정하고, 형벌을 감소시켰으며; 과거 제도 과목을 증설하였고 선비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격려했는데, 진사과는 점차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었다; 각급 관리들의 재직 기간의 업적을 엄격히 고찰하였다. 경제적으로 백성들의 노역 부담을 경감하였고, 농업생산 발전을 격려했다.

당초 돌궐은 고비사막 이북지역과 서역의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고, 항상 당조에 소란을 피웠다. 정관기간 당태종이 군사를 일으켜 반격하였고 선후로 동·서 돌궐을 공격하여 서역에 대한 통치를 강화시켰다. 당태종은 통치기간 정치가 비교적 청명했으며 경제적으로 한층 더 발전했고, 국력을 증강했으며 문화와 교육이 창성하여, 역사상 이를 “정관의 치”라 불렀다.

여황제 무측천

무측천은 원래 당조의 제 3대 황제 당고종의 비였고 지모가 뛰어나고 판단이 정확했다. 그녀는 황후가 된 이후, 당고종과 함께 조정을 장악했다. 당고종이 세상을 떠난 후 무측천은 이미 황제가 되었던 두 아들을 폐위시켰고 자신이 그들을 대신하였고, 국호를 周로 고쳤다. 그녀는 중국역사상 유일한 여황제가 되었다. 무측천 통치시기 적대적인 관료 귀족을 공격했다; 크게 과거제를 발전시켰고, 전시제도를 창립했으며, 친히 응시생들을 면접했다. 인재를 등용할 때 격식에 얽매이지 않아 통치의 기초를 확대했다. 그녀는 정관이래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과 조치를 계속 추진했다. 그녀가 재위기간에 있을 때 사회경제는 지속 발전했고, 인구는 계속 증가했으며 변강을 공고히 하며 개척했다. 이는 후대 “개원성세”의 국면을 탄생시키는데 기초가 되었다.

“개원성세”

당현종은 무측천의 손자로 다재 다능할 뿐 아니라, 국가를 치리하는 데도 매우 큰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즉위한 뒤 정국을 안정시키고 힘을 다하여 나라를 다스렸고, 어질고 재능있는 사람을 중용했다. 현명한 재상 요승과 송경의 보좌아래 일련의 개혁을 실행했다: 관리의 치적을 정돈했고, 필요없는 인원을 삭감했으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제를 개혁했으며, 문화와 교육을 중시하고, 경전과 고적을 편수하였다. 당현종 재위기간에 연호를 “개원”으로 하였는데, 당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번영하며, 국고가 풍성하고 민생이 안정되어 당조의 국력이 미증유로 강대해져 전성시기로 진입했는데 역사상 이를 “개원성세”라 했다.

제 3과 성당의 기상

장안에 온갖 꽃이 만개할 때, 풍경은 아름답게 이리저리 파도처럼 출렁이네. 술을 사지 않는 자 없으니, 어느 곳에서 음악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당조시인 유우석의 시 《百花行》로 장안 도시인들이 꽃을 감상하는 성황을 묘사한 것이다. 당전기 사회경제는 고도로 번영한 현상이 나타났다, 성당시기 사람들의 물질 생활과 정신문화 생활은 어떠했을까? 당시 민족관계는 어떠했을까? 당대 문학과 예술방면에 또한 어떤 휘황찬란한 국면이 재현되었을까?

경제의 번영

당조 전기 100년중 경제는 신속하게 발전했고, 사회는 번영의 양상을 드러냈다. 농업방면에서 개간면적이 점점더 늘어났고, 농업생산기술이 부단히 개선되었으며, 끝채가 있는 쟁기(犂)와 관개용 수차와 같은 일련의 중요한 생산도구를 발명하고 또한 널리 보급했다. 당왕조는 수리 공사를 매우 중시했고 전국 각지에 매우 많은 수리 공정을 건설했다. 당조의 수공업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방직업의 품종도 대단히 풍부했고, 특히 실크 공예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중 사천성에서 나는 채색비단인 촉금(蜀錦)은 색채가 아름답고 화려하여, 정교한 무늬 장식은 전국 으뜸이었다. 도자기 생산기술도 매우 높았는데, 월요(越窯)의 청자는 얼음이나 백옥같고, 형요(邢窯)의 백자는 눈이나 은과 같았다. 국내외에 명성을 떨친 당샘채는 조형이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색채가 화려하였다. 이 외, 조선업, 채광야금업, 제지업 등 모두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다. 당조의 상업은 매우 번영했고, 수륙 교통이 발달하였으며, 무역 왕래가 빈번하여 여러 변화한 대도시들이 나타났다. 장안 도성의 규모는 웅장했고, 구도가 질서롭게 대칭된 형태였으며, 거리가 넓고 정연하며 상업이 번창하여, 당시 중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도시이기도 했다.

민족 교류와 융합

당초 돌궐이 고비사막의 북방인 막복과 서역의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당조를 교란시켰다. 정관 연간 당태종은 군대를 일으켜 반격하여 동돌궐과 서돌궐을 격파하고 서역 통치를 강화하였다.

당태종의 깨어 있는 민족정책은 주변의 각 민족의 옹호를 받았고, 당시 북방과 서북 지역의 여러 민족 수령들은 당태종을 여러 민족의 ‘천가한’으로 떠받들었는데, 이는 곧 여러 민족의 공동의 군주라는 뜻이었다.

당조시기 한족과 북방소수민족이 잡거하고 통혼하면서, 민족간의 융합이 한층 더 발전했는데 많은 중요한 관직은 소수민족 인사가 담당했다. 동북, 서북, 서남 등 지역의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은 당 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예를 들면 당 현종 시기 발해국의 수령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하고 회흘수령은 회인가한(懷仁可汗), 남조 수령은 운남왕으로 책봉하였다. 또한 당조는 선후로 안서도호부와 북정도호부를 설치하고, 서역의 천산남북 지역을 관할했다.”

• 역사적 사실소개(相關史事) : “송화강, 흑룡강 유역에서 생활하는 말갈족, 그 중 한 갈래인 속말말갈이 7세기말에 여러 종족을 통일하고 정권을 수립하였다. 후에 당 현종이 그곳에 주(州)를 설립하고 그들의 수령을 도독으로 삼았으며 발해군왕으로 봉하였다. 책봉을 받은 발해국은 내지와의 무역왕래가 빈번하였고, 경제문화 발전이 매우 빨랐기에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당태종때 토번의 최고통치자 ‘찬보’인 송잔감보는 청장고원의 각 부족을 통일하여 뤼세(지금의 서장 라싸)에 도읍을 정하였다. 그는 생산을 발전시키고, 제도를 개혁하는 일련의 조치를 실행하였다. 그는 중원문화를 흠모하여 여러차례 사자를 파견하여 당조에 구혼하였다. 당태종을 문성공주를 그에게 시집 보내는데 동의하고, 특사를 파견하여 먼길을 떠나는 문성공주를 호송하도록 하였다. 641년 문성공주가 서장에 들어갈 때 곡물 종자, 약재, 차, 수공업품 및 역법, 과학기술 방면의 서적을 가지고 갔다. 수행하는 인원들 중에는 또한 많은 수공업장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뤼세에 소소사(小昭寺)를 짓고, 또한 대소사(大昭寺)를 건축하는 데도 참여했다.

송잔감보는 중원문화를 더 잘 배우기 위하여 귀족 자제들을 장안에 파견하여 학습하게 하

였으며, 또한 당조에게 누에씨를 주고, 여러 가지 전문 기능을 장악한 장인들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조와 토번의 화친으로 토번의 경제와 사회 발전이 촉진되고, 한족과 장족 두 민족간의 우호 관계가 증진되었다. 이 역사적 미담은 회곡과 벽화 민요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한족과 장족지역에서 널리 전해졌다.

개방적인 사회 풍조

당조시기 사회 풍조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사회에 활력이 넘쳐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정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일부 여성들은 문학과 음악 등 여러 방면의 교육을 받았으며, 가마, 격구, 줄다리기, 활쏘기, 바둑 등 활동을 즐겼다. 당시 사회 풍조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의식주, 교통 등 방면에서 서북 소수민족 풍습의 영향을 받았고, 굳세고, 용맹스러운 무예를 숭상하는 풍조가 한 때 성행하기도 하였다.

다채로운 문학예술

당조는 중국 역사상 시가 창작의 황금시기였다. 당시 문인과 사대부들은 시가를 노래하거나 읊는 것을 사회교류와 감정토로의 중요한 방식으로 삼았다. 체제가 풍부하고 풍격이 다양한 당시는 『전당시』에 수록된 시만 근 50,000 수에 달한다. 당시의 시단의 기상은 웅장하고 화려하며 변화가 많았고, 명인들을 배출하였는데, 가장 유명한 이들로는 이백과 두보, 백거이 등이었다.

조국 산천의 장려함을 노래한 이백의 시가는 격양된 진취적인 정신을 토로하면서 권세에 대한 멸시와 세속을 초월한 기개를 표현하고 있다. 대범함이 뛰어난 그의 시는 상상력과 감화력이 넘치고 짙은 낭만적 정서를 지니고 있어 이백을 “시선”이라는 명예로운 평판을 누리고 있다. 당조가 전성기에서 쇠퇴의 길로 나아가는 시기에 살았던 두보는 인생에서 많은 곡절을 겪었다. 그의 시는 순박하고 중후한 풍격을 지녔는데 많은 시들은 전쟁과 정치적 부패가 백성들에게 안긴 고통을 반영하여 비분 넘치고 처량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두보의 시는 역사의 진실한 상황을 보여주었다고 하여 “시사(詩史)”라고 불리고 있으며, 그는 “시성”으로 칭송되고 있다. 사회현실을 직시한 백거이의 시는 통치자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고통을 폭로하고 있다. 그의 시는 평이하고 친근감이 있으며 통속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쉬웠으므로 여성들이나 어린이들도 모두 읊을 줄 알 만큼 대중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당조시기 서예와 회화, 음악, 가무, 석굴, 조각 등 면에서 예술 창작의 성과가 탁월하였다. 당조시기 서예명가들이 배출되었는데 가장 유명한 이들로는 안진경과 유송권, 구양순 등이 있었다. 안진경의 글자는 단정하고 역동적인 미가 있었으며 웅혼하고 둔후하였다. 유송권의 글자는 반듯하게 꺾어지며, 매우 화려했고, 필력은 힘이 있고 강했다. 당조의 회화는 제재와 유형의 폭이 넓었는데, 인물화, 산수화, 화조화 및 종교화가 있었으며 유명한 화가로는 염립본, 오도자 등이 있었다. 염립본의 인물화는 인물의형상이 각각 다르고, 표정과 형태가 모두 생동감이 있었다. 오도자의 그림은 붓놀림이 강하고 힘찼으며 풍격이 분방하였다. 당시의 음악, 무용은 주변 민족들의 예술의 정수를 받아들여 다채롭고 다양하였으며 기예가 출중한 많은 무용가와 가수, 악기 연주자들이 배출되었다.

제 4과 당대 중외 문화 교류

우리 나라의 서안시과 일본의 나라시에는 아베노 나카마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아베노 나카마로는 당조때 중국에 왔던 일본인중의 걸출한 대표인물이다. 당시 많은 일본사람들이 중국에 온 것은 무엇때문일까? 『대당서역기』에는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서술되어 있을까? 감진 승려는 무엇 때문에 여러번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러한 관련된 사람들과 사건들은 중외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어떤 적극적인 공헌을 했을까?

견당사

당조시기 중국과 일본은 교류가 매우 빈번하였다. 중국의 선진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일본은 사절을 중국에 파견하였는데, 당시 이들을 ‘견당사’라고 불렀다. 사절을 따라 중국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많은 유학생과 유학생들도 있었다. 일본은 십 여 차례 견당사를 파견하였는데, 가장 많은 때는 500여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당조의 선진적인 제도와 천문역법, 문자, 전적, 서법예술, 건축기술 등을 일본에 가져가 일본 사회의 발전에 심원한 영향을 주었다.

감진의 동도(東渡)

당조의 일본의 문화교류에서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은 감진이다. 그는 양주 대명사의 고승으로 일본 승려들의 초청을 받고 동쪽으로 건너 일본으로 가려고 했으나 처음 다섯 번은 모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지나친 고생으로 인해 실명하고 말았다. 그러나 감진은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도전하여 여섯 번째 바다를 건너 끝내 754년 일본에 도착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불경을 전수하고 또 중국의 의약과 문학, 서예, 건축, 회화 등도 전파함으로써 중일문화교류에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당과 신라의 관계

조선반도의 국가들은 수조, 당조와 왕래가 빈번하였다. 신라는 강성해진 후 사절과 많은 유학생들을 당조에 파견하여 중국 문화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많은 신라 상인들이 중국에 와서 장사를 하였는데 신라 생산품은 당조의 수입품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했다. 신라를 당 제도를 모방하여 정치제도를 세우고, 과거제도를 채용하여 관리를 선발했으며 중국의 의학 천문, 역법계산 등 과학기술 성과를 들여왔다. 조선의 음악은 중국에 전파되어 당조의 궁정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광범위하게 유행하였다.

• 역사적 사실소개(相關史事) : 당의 시문, 전적 등이 대량으로 조선에 전파되었다. 신라인 최치원은 12살에 당에 들어와 학문을 탐구하였고, 18살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훗날 당조에서 관리가 되었으며, 대량의 시문을 썼다. 그의 문집 《계원필경》은 지금까지 전해진다.

현장의 서행

당조는 천축(지금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포함)과 빈번한 왕래를 하였다. 정관 초 고승 현장은 불경을 구하러 서쪽의 천축으로 떠났다. 그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갖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4년간의 먼 길을 걸어 천축에 도착하였다. 천축의 유명한 사찰들을 두루 방문하면서 불법을 연구, 학습하고 불교학의 최고학부인 나란타사에서 유학하기도 하여, 그는 원근에 명성이 높은 불교학대사가 되었다. 10년 후 대량의 불경을 가지고 장안으로 돌아온 현장은 그후 불경 번역사업을 주관했고 중국의 불교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

의 구술에 근거하고 제자들의 기록에 의해 책으로 쓰여진 『대당서역기』는 그가 돌아다녔던 100개의 나라와 지역의 산천, 풍물과 사회풍속습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중외교류사 연구에 있어서 진귀한 문헌이 되고 있다.

제 5과 안사의 난과 당조의 쇠퇴

“세상사람 모두가 병정으로 징집돼 변방으로 나가고 봉화는 벌써 산봉우리를 뒤덮었구나 초목속에 쌓인 주검 악치를 풍기고, 흐르는 피는 강과 들판을 붉게 물들었구나” 이는 두보가 지은 『수로별(垂老別)』이라는 시에 안사의 난으로 인한 참상을 묘사한 것이다. 태평성세를 누리던 성당은 당현종 후기에 급격히 내리막 길을 걷더니 대규모 동란이 일어나면서 쇠퇴의 길로 향하게 되었다. 이 동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동란으로 초래된 후과는 또한 어떠할까? 당조가 멸망한 후에 어떤 국면이 나타났는가?

안사의 난

개원말년 이후 당현종이 향락을 일삼으면서 능력을 불문하고 가까운 사람을 등용하면서 조정은 나날이 부패해갔다.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변경의 정세도 나날이 긴장되었다. 각지의 절도사들은 점차 군권과 행정권, 재정권을 한손에 쥐면서 세력이 팽창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역량대비가 균형을 잃으면서 변경의 세력이 강하고 내지가 약한 국면이 형성되었다. 범양 등 세 지역의 절도사를 겸임하고 동북지구의 방어의 중임을 맡고 있던 변방 장수 안록산이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755년 안록산은 조정에 간신이 나타났다는 구실로 부하 군장 사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는데 역사에서 이를 “안사의 난”이라고 한다. 안록산과 사사명의 반란군은 하북으로부터 대거 남하하여 먼저 동도 낙양을 함락시킨 다음 동관을 점령하고 장안으로 공격해왔다. 당현종은 황급히 사천으로 도망 가고 태자 이형이 영무로 복상하여 황제로 옹립되었는데, 그가 바로 당숙종이다. 당조는 서북지구를 지키고 있던 정예병들을 전부 내지로 이동시킴과 아울러 북방의 소수민족군대의 도움으로 반란군을 반격하였다. 안록산은 사사명 반란군의 잇따른 내란은 최종적으로 763년에 평정되었다.

8년간 지속된 안사의 난은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파괴를 입혔는데, 특히 북방지역은 큰 재난을 당하였다. 당조의 국세는 이때부터 쇠퇴의 길로 나가면서 각종 모순이 갈수록 첨예해졌다. 당조의 중앙권력이 쇠퇴해지고 안록산과 사사명의 옛 부하 군장들과 내지의 절도사들의 권세가 커지면서 점차 번진할거의 국면이 형성되었다.

황소봉기와 당조의 멸망

당조 후기 통치가 부패하여 환관이 권력을 독차지하였고 번진할거의 정세가 날로 심각해졌을 뿐 아니라 서로간의 견병전쟁이 벌어져 중앙은 더 이상 번진을 통제할 힘이 없게 되었다. 조세와 부역이 번잡하고 무거웠던 백성들은 생활하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데다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살아갈 길이 없어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다. 봉기군은 황소의 인술하에 남북을 옮겨다니며 싸우다가 장안을 함락하고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당조의 통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본래 농민봉기군은 군장이었다가 당조에 투항한 주운은 절도사로 책봉을 받고 나서 기타 번진들과 연합하여 황소 봉기를 진압하였다. 점차적으로 조정을 장악한 그는 북방의 크고 작은 할거세력들을 연이어 겸병하였다. 907년 주운이 후량정권을 수립하자 당조는 멸망하였다.

5대 10국의 교체와 분립

당조가 멸망한 후 북방의 황하유역에는 선후하여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5개 정권이 나타났고 남방지역에는 오, 남당, 오월, 전촉, 후촉, 초, 민, 남한, 남평 9개 정권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북방의 태원을 할거한 북한을 더해 역사에서는 ‘5대10국’이라 한다.

5대 10국은 당조 말기 이래 변진할거 국면의 연장이었으며 그들의 개국군주는 모두 군권을 장악한 무장들이었다. 북방은 정권이 빈번히 교체되고 전쟁이 그칠 새없어 정세가 불안정하였다. 당시 남방지역은 전란의 영향을 적게 받아 정국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경제의 본래의 기초위에 일정한 발전을 지속했다. 5대 10국시기에 정권이 분립되기는 하였지만 장기간 정치적 통일의 역사적 영향과 경제 발전에서의 각지의 긴밀한 연관성으로 말미암아 통일은 시종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